

함평군, 수해 복구 나몰라라... 영농철 앞 속타는 농민들

2022년 정비 마친 금곡리 소하천, 지난해 제방·농수로 일부 무너져 군, 시공사에 책임 떠넘기며 방치... 복구 예고도 없어 농민 피해 우려

지난해 장마철에 발생한 수해로 무너진 제방과 농수로가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돼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었는데도 복구하겠다는 예고가 없어 올해 농사를 그르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와 상곡리의 논과 밭을 연결하는 수로 600여m 구간이 블럭과 제방이 함께 내려앉은 건 지난해 6월이다. 장마철에 발생한 수해로 무너진 제방과 농수로가 10개월째 내버려 두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주민과 농기계 통행에 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수해로 무너진 제방 농수로와 블럭에 비막이용 천막만 덮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은 문제가 되는 대동면 금곡리 일원 남약제 1.41km 구간을 공사비 37억여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2022년 10월 준공했다. 이후 지난해 수해로 일부 구간이 무너졌고, 군과 시공사 간 책임소재 논란이 일면서 방치된 채 복구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시공사는 "예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대형블럭으로 공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제방 상단에 콘크리트포장이 우선 시공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평군의 입장은 다르다. 농수로 붕괴가 사업 준공과 2023년 5월 하자점검 확인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책임소재가 시공사에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농민들은 모내기 철이 다가오는데 복구가 안 되면 큰일이라며 속을 태우고 있다.

주민 정 모(78)씨는 "제방 농수로가 벌써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데, 올해 모내기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언제나 될지 모를 복구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일부 구간 통행 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제방 붕괴에 따른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군에서 정비와 복구를 시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 글·사진=한승우 기자 hsy@kwangju.co.kr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와 상곡리의 논과 밭을 연결하는 수로 일부 구간이 지난해 수해로 블럭과 제방이 무너진 채 10개월째 방치돼 있다.

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일부 구간 통행 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제방 붕괴에 따른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군에서 정비와 복구를 시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30개 추가

발효식품·한라봉·꿀·오리구이 꾸러미 등 총 64개로 늘어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한라봉과 발효 식품, 농촌 체험권 등을 포함해 품목을 64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나주시는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30개(16개 공급 업체)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답례품 품목은 34개에서 64개로 늘었다.

나주시는 한 품목당 2개 업체까지 등록할 수 있었던 기준을 완화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라면 모두 공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답례품 선정 평가는 업체의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 연계성 등 4개 항목의 정량평가와 사업 계획, 정책성·우수성, 수행능력 등 정성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구성했다.

추가된 신규 품목은 가공식품 14종, 농·축산물 13종, 관광 서비스 2종, 수산물 1종 등 총 30개 품목이다. 가공식품류 답례품에는 발효식품, 발사믹 식초, 구운 달걀, 참주가 생갈리, 배 숙취해소제, 절굿대떡, 절굿대오리떡, 양파즙과 여주즙, 꿀차 꾸러미, 통팔 잘보리빵 등이 이름을 올렸다.

농·축산물 답례품은 한라봉, 혼합 과일 꾸러미, 노안 돌미나리, 대패 삼겹살, 등심, 불고기 삼겹살 꾸러미, 초당 옥수수, 옥수수쌀, 허니스트, 아가시아꿀, 오리구이 꾸러미, 꿀구름, 별화분 등이 있다.

김 꾸러미와 '농촌 일일 강좌 체험권'도 답례품 목록에 포함됐다.

나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확대에 의해 지역 영세업체가 성장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기부자)이 주소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첫해인 2023년 목표액 1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아울러 올해 기념 사업으로 '꿈나무 동지 조성', '100원 빨래방 마을 공동 운영', '반려동물 친화도 시 문화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해외 지자체 협력해 부족한 일손 수급

베트남 풍합현서 20명 입국

강진군이 해외 지자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며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23일 도암농협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20명의 입국을 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강진군의 국제 우호 교류 도시 베트남 하우장성 풍합현에서 왔다. 지난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강진으로 왔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강진원 군수를 비롯한 윤영남 강진군의원, 도암농협 등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근로자들은 지난 22일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마약검사와 건강검진을 받은 후 한국 문화와 간단한 한국어 교육, 농작업 안전교육, 근로기준법 교육, 마약류 국내법 위반사례교육 등을 받았다. 적응 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영농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당 하루 1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강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브로커) 가입과 근로자 이탈, 임금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간 직접 계약을 맺었다.

이 같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하면서 인력 보급을 강화하고 근로자 급여와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우장성 풍합현을 찾아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풍합현은 직접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중개인 가입을 원



강진원(왼쪽) 강진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에게 강진군 방문 기념 가방을 선물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천적으로 차던했다. 도암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인력 공급을 맡는다. 올해 2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뒷받침했다.

강진군은 계절근로자가 국내 체류 기간 머물 숙소를 빌려주기 시작했다. 군비를 들여 숙소 건물을 수리하기도 했다. 20명의 계절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숙소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늘리고 에어컨과 세탁기,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갖췄다. 강진군은 풍합현 관계자와 영상 회의를 하며 베트남 인 문화에 맞는 거주 공간을 꾸려줬다.

근로자는 1인당 월 12만원의 숙박비를 부담하면 된다. 이는 법무부 지침(임금의 30% 이내)이 다른 지자체(월 30만원)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

이다. 강 군수는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에도 나섰다.

베트남 풍합현과 강진군은 강진원 군수가 재임한 지난 2013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같은 해 강진군은 풍합현에 우호 교류협력 추진실무단을 파견했으며, 지난해에는 의료봉사과 농자재, 자전거, 선봉기 지원 등을 펼쳤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환영식에서 "먼 곳에서 온 소중한 옛 친구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전 국민과 함께 근로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강진군에서 잘 지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에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 개소



장흥군 부산면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 개관식에서 장흥군 관계자와 장흥FC 축구 꿈나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지난 20일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 개관식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정성인 장흥군 체육회장, 왕윤재 장흥군의회 의장, 장흥군 체육 관계자, 장흥FC 학생·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은 기존 정남진 리조트 건물을 새로 단장해 마련했다. 공용 샤워실과 세

탁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냉난방기 교체 등 내부 개선을 거쳐 완성했다. 생활관은 장흥FC 합숙소로 위탁 운영된다. 유·청소년 스포츠 생활관은 내년 개원 예정인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해 대규모 스포츠대회 참가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초보 귀농인, 장성 귀농학교에서 배우세요

26일까지 교육생 모집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은 귀농에 필요한 지식과 영농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초보 귀농인에게 호응이 높다.

귀농 기초 소양교육, 작물별 재배 체험, 선도 농가 방문 등을 통해 영농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오는 5월8일 개강한 뒤 월 2회씩 총 10회, 회당 4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카카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장성군은 이 밖에도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인 상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별 신청 기간이 달라 장성군 귀농경영팀(061-390-7181)에 문의하거나 누리집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떡깨비' 3000원 할인

담양군 배달업, 5월 한달 이벤트

담양군이 다음 달 열리는 '23회 담양 대나무 축제' (5월11-15일) 성공 개최를 위해 공공 배달업 '떡깨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떡깨비' 행사는 5월 한 달간 열린다. 떡깨비를 통해 1만2000원 이상 주문하면 3000원 할인을 준다.

할인권은 1인당 1일,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라면 5000원의 할인권과 함께 총 8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떡깨비는 모바일 담양사랑상품권(chak)으로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0% 구매 할인이 적용된다. 공공배달업 '떡깨비'의 중개수수료는 1.5%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민간 배달업에서 발생하는 입점비,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떡깨비 가맹점 신청은 '떡깨비 사장님' 누리집(boss.mukkebi.com)과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서 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23회 담양 대나무 축제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는 배달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장 교통안전 캠페인



구복규(오른쪽) 화순군수가 '고인돌 봄꽃 축제'를 찾은 관광객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최근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행사를 찾아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막한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화순 고인돌 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화순군은 화순경찰서, 화순교육지원청, 화순소방서, 학부모연합 등 민·관 단체 100여 명과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했

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안전 수칙과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현수막, 전단, 홍보물 등을 통해 알렸다.

또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 통행 방법 준수사항인 '접근 때 서행' '좌회전 안쪽 차로, 우회전 바깥쪽 차로' '회전 차량 우선' '회전 차량 멈추지 말고 서행' 등을 설명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